

# 사랑통해 깨달은 생의 자각

알렉상드르 자르덴의 「팡팡」

한 젊은 청년의 애정편력과 성장기를 통해 삶에 대한 자각을 얻어나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번역소설 「팡팡」은 독자의 관점에 따라 단순한 애정소설로도, 그 이상의 가치를 은닉한 작품으로도 읽힐 수 있는 특이한 소설로 보여진다.

스무살의 나이로 처녀작 「머릿속의 당구공」을 발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일약 프랑스 문단의 총아로 화려하게 등장한 작가 알렉상드르 자르덴은 주목 받는 신예이면서 한편 우리들의 또다른 흥미를 자극한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관계에서 노출되는 아픔을 극적으로 드러낸 작품 「노란꽃추」의 작가 파스칼 자르덴의 아들로 그 역시 「팡팡」에서 부자지간의 미묘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 하나의 테마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견해를 견주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남자와 두 여자 사이의 '애정사슬'이 이야기의 맥을 구성하고 있는 이 소설은 주인공 알렉상드르 크루소가 사춘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도덕하고 뒤틀린 애정행각에 대해 환멸을 느끼면서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금기시하게 된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작가의 발상은 기발하다.

주인공 알렉상드르의 조상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점에서 그렇다. 로빈슨 크루소가 마지막이 된 항해를 떠나기 전에 맺은 인연으로 자손을 남겨 주인공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소설의 도입부를 마련하고 있는데, 조상들의 방탕한 끼가 자신에게 유전되어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두려운 주인공은 순간의 쾌락과 말초적인 유희의 생활을 기피하는 두터운 벽을 쌓게 된다.

로르라는 도덕적으로 안정된 이상적인 여인

을 만나 결혼을 약속한 알렉상드르는 우연히 만난 여인 팡팡에게 매료당하고 만나. 자유분방하고 완벽한 육체와 정열이 넘치는 팡팡과 로르 사이에서 왕복달리기를 계속하던 알렉상드르는 저녁강가의 노을에 등이 붉게 물든 연어 같은 팡팡과의 결합을 통해 생의 자각을 터득하게 된다는 줄거리를 가진 이 소설에서 눈여겨 보게 되는 점은 인간의 숙명적인 고민인 性과 가족의 절대적 명제를 소재로 다루면서도 세기말적인 종결로 끝맺음 하지 않고 화해 - 아버지와 아들의, 터부시해 온 性의 문제를 사랑이라는 치료약으로 완치시키는 - 로서 답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분히 통속적인 사랑이야기를 기발한 착상과 근사없는 진행으로 지루하지도 말초적이지도 않으면서, 재미와 의미가 고루게 연결지워진 작품으로 완성시킨 작가의 솜씨가 뛰어난 작품이다.

## 전선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영동APT 48동

# 새로운 사회주의 철학 진로 모색

소비에트연방 과학아카데미편 「철학교과서」

사회주의 국가의 변혁이 이제까지의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교의라 생각되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사회주의의 철학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철학이 그 시대의 총체적 반영으로서의 세계관의 정수이며 인간의 실천을 방향지어주는 나침반이라 한다면 현재 변화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페레스트로이카의 철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고르바초프노선의 철학이데올로기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포롤로프가 대표로 1989년도에 집필한 「철학교과서」는 이제까지의 소비에트연방 과학아카데미에서 나온 철학책들과는 엄청나게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은 과거 소비에트철학이 교조주의, 독단주의에 사로잡혀 현실변혁을 위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로서의 철학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음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현재 소비에트 사회 및 전인류적 문제를 구체적 현실의 중심에 놓고 철학을 새로이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과거의 맑스·레닌주의 철학 즉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에서 정당한 지위를 가지지 못해온 인간 문제를 철학의 중심에 끌어들이 철학의 서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조하였다. 물질·의식의 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모든 논의를 구성해 온 것으로부터, 인간·세계의 관계를 철학적 문제의 중심에 놓고 여타의 제반 철학적 문제들을 고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제1장 철학, 그 정의와 의미 및 기능에서는 철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해

본질적인 고찰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필자들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며, 제3장 맑스주의 철학의 형성과 발전은 필자들이 자신들의 철학을 맑스주의 철학의 계승과 혁신의 측면에서 어떻게 위치시키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철학교과서」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제2편 이론과 방법, 문제, 개념, 원칙은 아직 출판되지 않았는데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이란 말 자체를 생략한채 존재, 물질, 변증법, 인간, 실천, 의식... 등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으로 이미 출판된 부분보다 더욱 그 내용이 주목된다.

현재 사회주의의 변혁이 불확실성 속에 놓여져 있고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과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교과서」도 상당 부분의 내용이 확실한 결론을 유보한 채 서술되고 있다. 아마도 이 책은 앞으로 많은 비판과 수정을 거쳐 새로운 사회주의 철학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과도적인 책이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심화된 이 사회주의 철학은 독자들에게 보다 융통성있는 사고의 지평을 열어 줄 것으로 보인다.

## 윤주연

서울시 도봉구 미아 4동 84번지

출판기획



하얀 여백과 신선한 아이디어와의 만남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져드립니다.

표지디자인  
단행본편집·제작대행  
광고카피 및 디자인  
사보기획·제작  
기업체홍보물(카탈로그등)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 1가685-217  
TEL: 461-8881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



●출판기획·집필대행·번역●단행본·잡지·사보편집 및 제작●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

그동안 출판기획 및 출판디자인 전문집단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아온 이름새벽이 사무실 이전과 더불어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출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이름새벽에서는 출판기획·집필대행·번역에서부터 단행본·잡지·사보의 편집 및 제작, 표지·본문·출판광고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출판의 전문분야에 걸쳐서 전문가적인 두뇌와 감각을 갖고 대항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읽기 편하고 보기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4-4 용우빌딩302호 전화, 268-2327·8 Fax, 268-2329

# 남파공작원의 피맺힌 육성 담은 수기

김진계의 「조국」

1945년 조국의 진정한 해방을 갈구하는 한 평범한 가장이었던 김진계옹은 쓰라린 한국 전쟁의 고통을 인민군 장교로 겪은 후 분단의 현실을 이산가족의 아픔으로 받아 안게 된다. 전후 복구건설시기 북한에서의 생활을 경험한 그는 남파공작원이 되어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8년간의 기나긴 복역생활을 한다. 1988년 12월 고령자로 석방된 김진계옹이 이제 남한의 독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

어떤 한 사람의 평범한 삶도 그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시대의 어떤 사람의 삶도 김진계옹의 그것보다 더 철저히 우리 역사의 중심을 관통하지는 못할 것이다. 조국통일의 맑은 논의와 주장이 있지만 김진계옹의 이마에 드리워진 굵은 주름살보다 뚜렷하고 분명하게 통일에의 의지를 담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남과 북에 두개의 고향이 있고, 남과 북에 각각 처자와 일가친척을 가진 71세 고령의 김진계옹에게 이 수기의 제목인 「조국」은 과연 무엇일까?

이 수기는 이념적 선전물이나 정리된 학술적 역사도 아니요 그저 재미나게 엮은 가공의 이야기도 아니다. 그러나 이 수기는 '이념적' 이기를 거부하는 통일의 이념을 담고 있고, 그 어떤 역사서보다 풍부한 우리의 현대사를 담고 있으며 소설보다도 더 극적인 삶의 전형 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했던 많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후퇴한 인민군의 중국에서의 생활, 미군의 세균전에 관련하여 한겨울에 파리떼를 목격했다는 이야기, 전후 복구건설시기 북한주민들의 생활상과 '농업협동화',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체적인

면면들, 한철야·이기형·김창만·박금철·김정일 등과 관련된 매우 흥미있고 진귀한 이야기들, 북한의 각사업장과 당 및 국가기관의 운영방식, 북한내부의 관료화된 몇몇 현상과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책의 마지막 오분의 일을 차지하는 남한에서의 장기복역생활,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살인적인 전향공작과 잘 알려진 장기수들과의 만남 등등... 이 책에 담겨진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현대사의 소중한 일차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독자에게 보다 강렬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것은 이제까지 남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쉽게 생각지 못한 것, 즉 우리 민족의 나머지 반쪽인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체험한 분단의 역사 그것이다. 처참하게 전쟁이 휩쓸고간 땅덩어리를 조국이라 부어안고 경제건설에 맨몸으로 나서야 했던 북한사람들의 경험, 첨단 정보장비로 무장한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원산항에서 나포되었을 때 북한주민이 느껴야했던 공포와 적대감, 조국통일에의 일념으로 남파공작원이던 한 사람이 남한의 어린이에게 젖뿔의 유무를 관찰하는 대상이 되었을 때 느껴야했던 분단의 심연 등... 김진계옹의 이 수기는 독자들에게 북한을 '인민의 낙원'인가 '강제 수용소'인가 하는 등의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험을 분석하기 이전에 같은 민족으로서 일단 공유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이념적 편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록들이야말로 통일의 징검다리를 놓아갈 것이다.

송희송

서울시 도봉구 전농 4동 20-55

# “믿을 수 없이 짧고 초라한 자유”

김수경의 「자유종」

무릇 작가들은 여하한 형태로든지 새로움을 추구한다. 형식 또는 기법의 새로움이 아니면 내용의 새로움을 획득하기 위해 작가 스스로의 행동반경을 넓히려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간접경험을 축적하기도 하는 것이다.

시인으로 먼저 다가왔던 김수경에게 이 새로움에의 동경은 더욱 절실했던 것 같다. 그것은 우선 소설로 창작의 매체를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소설쓰기의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소설은 “한국의 시인이자 해부학도며 노처녀인” 한 여주인공이 “이제 막 너절한 삶으로부터 빠져나와 그녀 생애 최초의 긴 여행길에” 오르기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안에 앉아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여태까지의 문학이 모두 재로 돌아가는 전대미문의 신소설”을 쓰기 위해 자신의 지난 삶에서 불거져 나오는 추억들을 정리해나간다. 더불어 1909년 발표했던 이해조의 신소설 「자유종」을 모티브로 예의 그 새로움을 이식시키고자 한다. 즉 문학적으로 창조적인 일면과 수용적인 일면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문학이라는 신소설의 문학사적 의미를 지금 쓰고자하는 자신의 작품에 현대적 의미로 재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바로 작가 자신이 된다.

주인공에 이입된 작가 자신은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그 이전 5공때의 박탈된 자유,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한 왜곡된(?) 몸부림을 오버랩시키며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간다. 그런데 문체는 이땅을 떠나서의 글쓰기, 그리고 소설 속의 주인공과 작가라는 최소한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완성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무엇인가 '중독'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시절에 빠져들던 마약과 방만한 성생활은 프랑스 땅에서도 계속되고, 소설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주인공과 작가가 거의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소설쓰기를 포기하고 귀국한 후에도 여전히 데모는 계속되고 최루탄이 터지는 와중에서도 '밤벌이'를 위한 소매치기가 공존한다. 결국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작가는 이 소설쓰기의 실패에 대해, 「자유종」에서조차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말-“너무도 믿을 수 없이 짧고 초라한 자유”-로 끝을 맺는다.

독자는 과연 이 복잡한 구조와 작가의 자기 만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국 작가는 그 어느 것에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하려는 것인가?

이 한편의 소설은 자칫 오독된다면, 그렇게도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묘사된 마약중독에의 과정과 금단현상, 자유롭게 보이지만 아무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성생활의 단면들의 연속체에 불과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열악했던 정치상황을 건드리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모적이었고 그러한 행동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약하다는 느낌이다. 물론 작가에게 어떠한 세계관이나 대사회적 메시지를 강요한다는 것도 월권행위임에 틀림없으나, 마약이나 성행위 중간중간 삽입되는 '삼청교육대'나 '전두환은 물러가라'라는 '활자'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무책임한 장식물이 아니겠는가?

권경희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5번지 1197호 20동 5반

## 단색 스캐너

### 寫真製版

— 전문메이커 —

- ◎ 즉석, 포시, 네가가격으로
- ◎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 작업
- ◎ 옵션인쇄, 본문~표지까지

進光文化社

TEL. 265-4726, 266-2091  
주소: 중구 충무로 5가 2-23




Illustration and Design

- 표지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편집디자인
- 로고/심볼제작
- 광고기획제작

아이앤디  
서울특별시 중구 자동2가 48-20  
경구빌딩 601호 Phone/277-8721

“ 표지디자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표지디자인을 원하십니까? ”

다물기획에는 출판인들의 노고의 산물인 좋은 책이 독자와 만나는 것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읽기쉬운 책' '보기좋은 책' '선택받는 책' 만들기를 추구하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물기획은 ऐसे 만들어진 좋은책과 보다 많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  
다물기획 133-080 서울·성동구 응봉동 10-83  
TEL/292·4546/294·9639 FAX/294·6443